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코로나19 여파 속 문화시설 온라인 콘텐츠

전시장 닫았지만 온라인은 살아있다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휴관
지난달부터 장기 휴관 속에
국립 시설 특별전 VR 체험
문화재청은 제주민요 등 8편
문화유산 활용 치유 콘텐츠

문화재청의 '제주민요' 마음 치유 콘텐츠 이미지. 실내 관람시설이 휴관하자 온라인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문화기반시설이 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문을 닫아놓고 있는 국립제주박물관.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의 하나로 다른 국공립 문화시설과 마찬가지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임시 휴관에 들어갔다.

이곳은 오프라인 전시장 빗장은 닫았지만 온라인은 문을 열어뒀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최근 행해졌던 특별전을 VR(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끈다. 특별전 전시 자료로 제작했던 영상을 온라인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지만 코로나19 여파에 몸과 마음이 지친 관람객들로선 반가운 서비스다. 박물관은 특별전 '유배인의 시간', '무병장수의 별, 노인성', 상설전시 탐라실 설문대할망, 특별전 '삼별초', 특별전 '탐라' 영상 목록을 제시하고 매주 게시 자료를 새롭게 바꾸겠다고 알렸다.

▶실내 전시실 휴관에 온라인 적극 활용=문화재청은 지난 6일부터 공식 유튜브에 문화유산을 활용한 마음 치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30분 내외 작품으로 4월말까지 금요일마다 매주 다른 문화유산을 온라인으로 내보낼 예정이다. 해당 콘텐츠는 총 8편으로 여기에는 3월 27일 소개될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도 들어있다.

해당 콘텐츠는 그동안 문화재청과 관계 기관에서 제공해 왔던 문화유산 홍보 콘텐츠 중에서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는 '문화유산 ASMR'을 활용해 만들었다. 명주 짜는 소리, 고택과 산사의 고즈넉한 바람 소리, 숲이나 해변의 듣기 좋은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 등이 아름다운 문화유산 영상과 함께 담겼다. 코로나19 여파로 실내 관람시설이 휴관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된 영상물이다.

국립중앙박물관도 휴관 중이지만 온라인으로 박물관을 즐길 수 있도록 최근 홈페이지를 바꿨다. 초기화면에서 가상현실과 동영상으로 박물관에서 이루어졌던 전시를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도내 공립 시설 홈피엔 임시 휴관 안내문만=제주지역 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온라인 콘텐츠 활용에 소극적인 편이다. 관람객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임시 휴관을 진행하고 있다는 안내문만 뜨거나 온라인 콘텐츠가 소장품 소개 정도에 그치는 등 빈약하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가 무형문화재 영상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콘텐츠를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해 온라인에 공개해도 된다. 공립미술관 자체 전시자료 중에서 영상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도내 공립박물관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콘텐츠 확충을 위해 별도 예산을 확보한 일이 드물었다"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기관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온라인 콘텐츠 강화를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맥 끊겼던 제주청년작가전 화려한 부활

1억원 증액해 지원 확대
제주 출신 등 39세 이하
4월 6~17일 지원서 접수

지난해 맥이 끊겼던 제주청년작가전이 화려하게 부활한다.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원장 현행복)은 9월 전시를 앞두고 새롭게 단장한 청년작가전의 참여 작가를 공모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12월 제주청년작가전 운영규정 전부 개정, 전시실 사전대관 운영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등 개선 내용이 반영되는 첫 행사다. 전시 예산이 종전 2500만원에서 올해는 1억원으로 증액되면서 3명의 선정 작가에게 창작지원비가 1인당 1000만원씩 지급되고 도록 제작, 작품 운송·설치·철수 지원, 전시장 조성비, 홍보비 등이 지원된다. 단순 전시 지원을 벗어나 평론가 연계 프로그램,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청년작가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만 39세 이하 대상 이번 청년작가전은 제주출신으로 도내외에 거주하거나 제주에 살며 6개월 이상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도외작가이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서 접수는 4월 6~17일 실시된다. 평면(서양화, 한국화, 판화 등), 입체(조소, 공예, 설치 등), 미디어(사진, 영상 등) 등 출품 분야에 따라 A4 크기 포트폴리오(작품사진 20매 이상)나 영상 저장장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문화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1994년부터 해를 거르지 않고 2018년까지 25회 동안 치러온 제주청년작가전은 그동안 연평균 36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우수청년작가 배출 인원은 총 46명에 이른다. 문의 064)710-7633. 진선희기자

2년째 휴교 비양분교장 문화공간으로

4월부터 체험학습장 등 활용
마라분교도 새단장 개방 예정

현재 휴교 중인 한림초등학교 비양분교장.

올해로 2년째 휴교 중인 한림초등학교 비양분교장이 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4월부터 한림초 비양분교장을 제주 교육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무료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비양분교장은 2019년 3월 휴교에 들어갔다. 학생 수가 줄어 올해도 문을 열지 못했고, 학교에선 이동 불편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가 하던 비양분교장 관리 업무를 맡아 교육가족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로 했다.

비양분교장은 과 단위 워크숍이나 교직원 가족을 위한 체험학습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에는 한수풀도서관이 여는 '제주도민, 관광객이 함께하는 비양도 북카페'도 2주간 시범 운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양분교장에는 최대 20명까지 숙박할 수 있다"며 "이를 교육가족의 문화공간으로 적극 조성해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활력소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3월부터 휴교 중인 가파초 마라분교장도 새롭게 선보인다. 도교육청은 국토 최남단에 있는 학교의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건물 내부를 수리한 뒤 관람용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문화가 쪽지

4·3미술제 7월로 연기

제주4·3미술제가 코로나19 여파로 7월로 연기된다. 탐라미술인협회는 9일 "2020년 4·3미술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7월로 연기된다"며 "현재 확정된 것은 전시를 연기한다는 내용 뿐으로 다른 세부사항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4·3미술제는 1994년 이래 해마다 치러지며 시각예술로 4·3의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27회째인 올해는 4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제주4·3평화기념관과 제주시 원도심 예술공간 이아 갤러리 두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김창열미술관 작품 수집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이 김창열 작가의 작품 수집에 나선다.

수집 범위는 김창열 작가의 시대별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데 필요한 작품이다. 모래, 나무, 흑연(검은 바탕) 위 물방울을 그린 작품을 중심으로 수집이 이루어진다. 매도나 기증을 희망하는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에서 양식을 내려 받으면 된다. 신청기간은 3월 19~3월 31일이다. 미술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작품구입 여부와 매입가격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문의 064)710-4145.

신화 원천소스 스토리 공모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제주도와 공동으로 제주신화 소재 창작 활성화를 위해 제주신화 콘텐츠 원천소스 스토리를 공모한다.

공모전의 주제는 '제주신화와 신화 속 캐릭터(신)'이다. 웹툰, 웹소설, 공연, 게임, 동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 가능한 순수 창작스토리를 찾고 있다. 개인, 팀, 기업 등 제한 없이 참가 가능하다. 수상자에겐 1대 1 스토리 컨설팅, 사업화 컨설팅 특전이 제공된다. 접수 기간은 4월 20일~24일이다. 문의 064)735-0618.

"보석언어 숨쉬는 제주서 살아마씀"

양순진 제주어 동시집
'좀녜영 바당이영' 발간

아래아가 살아있는 제주어 동시집이 나왔다. 제주 양순진 시인의 '좀녜영 바당이영(해녀랑 바다랑)'이다.

양 시인의 동시집 발간은 세 번째다. 지난 두 권의 창작집에서 개인과 가정, 학교 이야기를 다뤘다면 이번엔 한라산, 오름, 신화, 바다, 해녀, 민속유산 등 제주가 품은 자연과 문화를 제주어로 풀어냈다.

시인은 제주어가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음을 이 세상에 알리고 싶어 제주어 동시를 택했지만 막상 쓸려니 쉽지 않았다고 했다. 2년 넘게 애만 태우다 지난해 초부터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수도 없이 제주어사전을 들여다봤다. 말하고 듣고 쓰기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지면서 오랜 기간 가슴 속에 묻어뒀던 '원초적 언어'가 꿈틀대는 걸 느꼈다. 그는 제주어 동시 작업에 대해 "그 아득한 옛날 할머니의 할머니가, 어머니의 어머니가 대대로 사용하고 입안에서 굴리던 우리만의 보석언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대발견"이라고 했다.

시집에는 '난 제주서 살아마씀' 등 제주어 동시 60편과 이를 표준어로 풀어낸 동시가 작품마다 뒤이어 실렸다. 어린이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동시에 어울린 그림은 곽금초등학교 학생 등 제주도 어린이들이 그렸다. 책과나무. 1만2000원. 진선희기자